

전북 제조업 77.9%, 중동 리스크에 경영 타격

고유가·환율·물류비 상승에 수익성 악화... 지원 대책 시급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10곳 중 8곳 가까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상공회의소의회의는 도내 제조업체 1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동 사태에 따른 전북지역 제조업 영향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7.9%가 현재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며 지역 제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은 요인은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41.0%를 차지했다. 이어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가 20.7%, 해상 운임 및 물류비 상승이 18.1%, 원자재·부품 수급 불안이 12.4%로 뒤를 이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응답 기업의 62.4%가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을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았으며,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비용 증가 18.4%, 운임 상승 및 항로 변경 등 물류 차질 9.0%, 수출 감소 등 해외 거래 위축 4.8%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분야가 83.4%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금속기계와 전기전자 각각 66.7%, 바이

오농식품 60.0%, 화학 52.4%, 섬유유복 50.0% 등 주요 제조업 전반에서 원가 상승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영향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전북 제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 특성상 대외 환경 변화가 생산비용에 직접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경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제조 원가는 오르는데 해상 경로 우회 등에 따른 물류비까지 급등해 수출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중동 정세 불안이 원가와 환율, 물류 등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들이 비상 경영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영 안정자금과 물류비·보험료 지원 등 수출 비용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와 수입선 대체, 수출시장 다변화,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관계기관과 함께 기업 간담회를 열고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향후에도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소상공인 희망채움 특례보증 '호응'

전북신용보증재단, 두 달 만에 213억원 신청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선보인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소상공인 희망채움 특례보증'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특례보증 상품에 현재까지 1,235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총 신

청 금액은 21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500억 원으로, 출시 두 달 만에 상당한 수요가 몰리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연으로 마련됐으며, 고금리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에 의존하는 소상공인과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일시 대출 방식과 달리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방식을 도입한 점이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상근 기자

보증 조건은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연 0.9%의 고정 보증료율이 적용되며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보증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임금 상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상품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개최한 '2025년 기업호민관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희망채움 특례보증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상용차 산업 공급망 안정화 공동회복 사업 추진

전북테크노파크, 수행기관 모집

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 상용차 부품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해 공동회복 솔루션 마련에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산업 생태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상용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의 친환경 미래차 전환과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모집 과정은 '미래차 공급망 재편 대응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친환경 상용차 부품 고도화 및 사업다각화 공동회복 지원'이다. 수행기관은 미래차 전환 컨설팅과 기술 고도화 역량을 갖춘 컨설팅사, 대학, 연구소, 협회, 시

험인증기관, 협동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 민간기업 등이 대상이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컨소시엄 형태 참여도 가능하다.

특히 5개사 이상 수요기업을 공동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의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PM) 지정이 필수 조건으로 제시됐다.

지원 대상 지역은 군산2국가산업단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군산 친환경 자동차용부품 R&D센터, 전주과화산업 연구단지 등 자동차 부품업 밀집지역이다. 대상 기업은 상용자동차 모기업의 1~3차 협력사 가운데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부품으로 사업 전환 또는 다각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이다.

지원 예산은 최대 6천만 원이며, 신청 기간은 23일까지다.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 R&D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9일 제3기 청년자율방재단 워크숍을 열고 발대식과 위촉장 수여, 오리엔테이션, 특별강연 등을 진행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기 청년자율방재단 출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청년 참여 기반의 재난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제3기 청년자율방재단을 출범시켰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9일 제3기 청년자율방재단 워크숍을 열고 발대식과 위촉장 수여, 오리엔테이션, 특별강연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워크숍에서 청년자율방재단 단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방재단의 역할과 임무를 공유하고, 1·2기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제3기 청년자율방재단은 앞으로 S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과 참여형 캠페인을 중심으로 재난예방 활동을 펼치며 안전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한국의 재난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제3기 청년자율방재단을 출범시켰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9일 제3기 청년자율방재단 워크숍을 열고 발대식과 위촉장 수여, 오리엔테이션, 특별강연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워크숍에서 청년자율방재단 단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방재단의 역할과 임무를 공유하고, 1·2기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제3기 청년자율방재단은 앞으로 S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과 참여형 캠페인을 중심으로 재난예방 활동을 펼치며 안전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X 청년재단 업무협약 체결

- 청년의 빛나는 내일을 모두가 누리는 국민연금과 함께! -

2026. 4. 10.(금) | 국민연금공단 본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0일 공단 본부에서 청년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 세대와 소통 창구 확대

국민연금공단-청년재단, 청년 미래 설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이 청년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청년재단과 손을 맞잡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0일 공단 본부에서 청년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층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제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협약은 공단이 최근 새 경영방침으로 내세운 '모두가 누리는 연금'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청년 세대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해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형 중소기업 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 전북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형 중소기업 인턴십'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도내 중소기업 10개사와 대학 외국인 유학생 1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기업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해 실무 역량을 높이고, 우수 외국인 인재의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된다. 참여 기업과 유학생 간 맞춤형 매칭, 사전교육, 현장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취업 연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참여 기업에는 유학생 인턴에게 지급되는 급여 전액과 기업 멘토수당이 지원된다.

또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채용 관련 법령 교육과 유학생 소통 교육도 함께 제공해 실질적인 채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3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전북중기청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